

2년만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열린다

4월6일 공공기관 13곳 참여...모의면접·취업사례 소개 등 구성 '취업 꿀팁 토크쇼' 유튜브 생중계...올 지역인재 282명 채용 계획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에서만 진행했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설명회가 2년 만에 나주에서 열린다.

이틀 예정됐던 행사 기간이 하루로 단축됐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전하는 채용정보를 유튜브 생중계로 접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13곳이 참여하는 '2022년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주관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생긴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채용설명회를 광주·전남에서 열었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2021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도 다음달 6~7일 이틀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청년창농타운에서 열려했지만 6일 하루로 개최 일정이 변경됐다. 단 일부 공공기관들이 전날 개별 영상을 사전 녹화하며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다.

광주·전남 소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혁신도시 채용문을 두드린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도 기관별 채용 안내와 모의면접 상담, 취업성공사례 소개, 취업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직업을 체험하고 대학에서 학점도 받

을 수 있는 협업 교육과정인 '오픈캠퍼스' 제도도 소개한다

행사 포문은 올해 지역인재 147명 포함 총 842명을 뽑는 한전이 연다.

한전 인사 담당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20분 동안 기업 소개와 채용제도,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서류전형과 면접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족집게 과외도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장에서는 실제 면접에 나온 기출 문제도 공개된다.

한전 관계자는 "서류전형 때 3~10% 가점을 주는 체험형 인턴이나 발명특허대진 입상자, 대학생 서포터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며 "종합면접 때 자신의 한결같은 가치관을 강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소개서는 꼭 숙지하고 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전 관련 소식과 현안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은 총 249명을 뽑는 상반기 대졸 공채를 이달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하반기 공채로 대졸 139명을 채용한다.

각 기관별로 주어진 20분의 설명회가 끝나고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취업특강과 실전상담이 기다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마련한 내·외부 면접관은

지역대학들이 추천한 예비 면접자들과 모의면접을 받고 참석해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유명 강사가 진행하는 'NCS 특강'은 45분 동안 진행된다.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선배 직원들이 참여하는 '취업 꿀팁 토크쇼'도 50분 동안 열린다. 사전에 받은 질문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실시간 오르는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혁신도시 취업에 성공한 선배 직원들의 응원 영상도 마련됐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2022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나주 이전기관 8곳은 지역인재 282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13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은 지난해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932명 가운데 287명을 광주·전남 출신 인재로 뽑으면서 30.8%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130곳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4.2%(1483명)를 기록했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30%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사학연금, ESG 경영 실현

식판 인증 경험 행사도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달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ESG 경영 실현을 취지로 마련됐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8월 ESG 경영을 도입한 뒤 같은 해 9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부메랑 에코백' 기증을 벌였다.

임직원들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진행했다.

사학연금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에 '먹을 때는 알맞게! 버릴 때는 가볍게!' 문구를 내걸고 사내 방송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

잔반 없는 식판을 인증하면 경험을 주는 행사도 벌인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하루 평균 40kg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속가능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와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회장 박민숙) 회원 등 30여 명은 22일 나주시 일원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벌였다. 전남농협은 농폐기물 수거사업인 '영농후(後) 환경애(愛)'를 벌이며 환경 오염과 산발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촌에서 살아가기' 27개 마을서 운영

전남도, 운영 마을 선정

전남도는 2022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운영할 27개 마을을 선정, 도시민 유치에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에서 살아가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업이다.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농지·주택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운영 마을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3개 객실 이상의 장기 숙박시설(30~180일)과 농촌 현장체험, 주민교류, 영농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21개 시·군의 대표 마을이다.

특히 올해부터 읍면 소재지와 근접해 생활 인프라

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중심지형, 한가지 작목을 생산에서 출하까지 경험할 수 있는 재배품목형 등 유형이 세분화돼 참가자가 본인에게 좀 더 적합한 마을을 선택할 수 있다.

참가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 도시민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모집하며, 참가자에게는 연수비 월 30만원,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남 농촌 20곳에 도시민 212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36명이 전남으로 이주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기차 폐 배터리 활용 ESS 연구개발 추진

녹색에너지연구원

약 30% 가격 공급 목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순환 생태계 기반 구축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 태양광과 연계한 2MWh급 ESS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보성파워텍㈜, 삼성SDI, 인셀(주), 바이오코엔(주), 한국전지연구소조합 등과 함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의 공동에 선정돼 연구개발 사업비 총 53억여원을 확보했다. 이번 과제는 지역 에너지밸리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 2MWh급 ESS 기술개발 및 실증으로 최적화 운영방안 실증 및 시스템 표준화 마련, 시험 인증 체계 등의 구축 등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특히 수명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ESS 기술개발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으로 환경문제를 5~7년 유예하고, 폐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등으로 상품 대비 약 30% 가격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과제 수행으로, 기존 전력망과 분리된 소규모 섬에 태양광, 풍력 등의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9년 국비 등 227억원을 지원 받아 전지협회,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7개 업체와 함께 'EV-ESS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센터'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KDN '메타버스'서 첫 경영소통회

한전KDN 임직원들이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첫 경영소통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경영소통회'는 임직원들이 경영현황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사업실적과 및 올해 목표, 대규모 신사업과 미래 산업 동향 등 구성원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다뤘다.

주제발표 뒤에는 참여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한전KDN은 지난해 가을에도 메타버스를 통해 'CEO와 함께하는 공감 특권서트'를 김장현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도 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임·직원 간 소통회는 자칫하면 경직될 수 있는 자리인데, 메타버스는 매개체로 젊은 직원들의 익숙한 속에 진행이 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사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